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21호(96/9/1)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지금은 한반도 남단은 전쟁중입니다.
한편은 막강한 공권력과 언론, 돈을 가진 정부입니다.
한편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학생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힘센 어른은 아이들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거야 인정한다 해도 점잖게 야단치는 게 아닌,
더 이상 끌도 보기 싫으니 죽으라고 합니다.
지금의 전쟁은 분명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나 덕목은 자취도 없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요만이 판치는 이곳에서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 사람사랑 21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헌법이 존중되는 사회를

김 동 한

(운영위원, 광주여대 교수 헌법학)

제헌절 48주년을 맞아 새삼 우리 헌법의 참 모습을 생각해 본다.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의 하나임에도 3.1절, 광복절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확산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그 동안 식민지 경험의 열등의식이 극복되지 못한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민족정통성 계승차원에서 제정된 개천절이나 민주국가건설의 상징적 차원에서 제정된 제헌절은 그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하루 쉬는 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헌절이 국민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지 못한 이유 가운데는 우리 헌정사의 왜곡된 유린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48년 민주국가의 틀을 제시하는 헌법을 제정할 때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중심제로 결정되었다. 그후 집권자의 장기 집권 욕으로 또는 군분 쿠데타에 의해 '법중의 법이어야 할 헌법'이 만신창이가 된 '헌 누더기법'으로 전락하였다. 9회에 걸친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개정은 단 두번뿐이었다. 즉 1960년 4월 혁명 후의 내각제 헌법과 1987년 6월항쟁 후의 현행 헌법이 그것이다. 그 이외에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었고 헌법과 괴였다. 개정이라고 평가받는 현행 헌법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 졸속성이 엿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토의와 공청회가 필요함에도 시간에 쫓기다보니 당시 여야가 당리당락에 집착했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당선 결정 조항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간에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단순 다수득표자로 결정하다 보니 35% 대통령이니 40% 대통령이니 하는 반쪽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마는 셈이다.

또한 헌법조문의 비문법성을 들 수 있다. 국어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 국민이 알기 쉽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헌법 조문을 만들어야 헌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아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조문이 눈에 띈다. 그리고 헌법 첫 머리에 서술체로 헌법의 기본원리를 밝힌 전문은 그 긴 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다. 오죽하면 쉽게 풀어 쓴 헌법을 제시한 사례가 생겨났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헌법 문장의 완전 한자화이다. 토씨만 빼고는 모두 한자로 된 헌법에서 대중성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 전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할 헌법이 시대에 역행하여 한자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한글세대, 컴퓨터 세대에 걸맞는 헌법이어야 민주국가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헌법을 손질한다면 앞서와 같은 문제점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연계시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헌법 손질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헌법교육을 시켜 미국헌법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한다. 헌법에 대한 긍정적인 대중적 인식이야말로 민주국가 형성의 지름길이다.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민주적 구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지향하는 민주 시민의 헌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존중되는 사회, 제헌절이 제 자리를 찾는 사회, 우리 헌법을 자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사 / 업 / 보 / 고

(7월 셋째주부터 8월말까지)

백승헌 변호사 운영위원 사퇴, 운영위 재편 돌입

- 제32, 33차 운영위원회 소식 -

■ 지난 8월1일과 28일에 걸쳐 열린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종인, 백승헌 변호사가 운영위원회 사퇴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변호사의 운영위원에서는 사퇴하지만, 자문위원으로 남아 사랑방의 사업에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운영위원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맡아나갈 것입니다. 어쨌건 현재 12명의 운영위원중 유학중이거나 사퇴한 운영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운영위원들이 절반이 넘어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짜야 하는 형편이며, 이를 위해 서대표가 운영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의 재정구조가 월 1백만원씩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인권하루소식 유료독자를 배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자칫 현재의 재정문제를 방관할 경우에는 사랑방 전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이번 9,10월의 하루소식 배가운동의 성패 여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올 하반기 인권영화제를 추진하고, 자료실 사업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현재의 실무자들을 재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간의 상근자 부서 이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여 사업에 결합,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을 화엄정보통신이 하이텔 01410망에 운영하고 있는 열린나라를 통해 통신 서비스해 왔으나, 이를 화엄만이 아닌 다른 통신망을 통해 정보제공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엄과의 독점적인 조항은 이미 변경토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천리안, 나우누리에 정보제공자(IP)로 참가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통신동호회인 참세상BBS에는 9월초부터 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외에도 내년도 콜롬비아 연수 프로그램에 최은아(정보자료실 간사)씨를 파견하기로 하였고, 회원통신 사람사랑을 21호부터 8면으로 증면키로 하였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합본6호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늦어도 7월까지의 발간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보강하느라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번 합본호에는 <인권하루소식> 95년 10월11일자부터 96

년 6월30일까지 실렸으며, 96년 상반기 인권상황을 정리한 글,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를 정리한 글 등이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는 500쪽이 넘는 매우 두꺼운 분량을 묶여 졌고,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들에게는 무료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1만5천원에, 하루소식 독자에게는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됩니다. 주위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자료집도 발간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무죄 또는 법원에 의해 위헌제정된 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등을 묶은 자료집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자료집도 7월중으로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박충렬씨 사건 판결문이 매우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이제사 발간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지난 합본 4호에 실린 판결외에도 주우열, 신희주씨, 진상호씨 사건, 박충렬씨 사건 등의 자료들이 있어서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복사본으로 제본한 자료집은 일단 한정본 30권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이후 주문량이 많으면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이화여대 개방대학에 인권강좌 맡기로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요청한 개방대학 강좌 중 인권 분야의 강의를 사랑방이 맡기로 했습니다. 강의는 9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네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여름에는 이화여대 법대학생회, 성균관대 동아리 휴머니티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 연대사업 >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인권협)은 지난 연세대 사태 이후 연세대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협은 민가협과 민변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모으고 있으며, 사랑방은 각 학교 현장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증언들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연세대 사태에서 빚어진 인권침해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9월초까지 기초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황수연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근절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등)는 오는 7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시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캠페인으로 유치원생,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들까지 광범하게 참여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심각한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실천 결의를 하게 됩니다. 행사 후에는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시민을 상대로 홍보할 예정이며, 대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의 성추행에 대한 사례도 폭로됩니다.

▲ 지난 6월부터 전국연합의 제안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위한 공식, 비공식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서대표와 사무국장이 중진모임과 실무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민가협등이 주최한 양심수 석방 캠페인에 사랑방은 1명의 상근자와 분담금을 내고 참가하였습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 준비 궤도에 올라

인권교육실

그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이 계획하고 준비해온 ‘제1회 인권영화제’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에 <인권하루소식>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 영화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광범위한 영화인들과 결합하게 되어, 지난 8월 8일 드디어 인권영화제 제1차 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도는 발표되기도 전에 영화제를 비롯한 각계 (물론 안기부와 경찰도 포함!)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로서의 정도[正道]를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인권운동사랑방의 방침은 검열제도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중견영화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검열거부의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물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영화제에 결합하는 인권운동가들도 영화인들도 이 영화제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일이 우리나라의 검열제도 철폐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서준식대표가 미국·일본 등지에서 모은 영화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이라고 젊은 영화인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1] ‘제1회 인권영화제’, 그 깊은 뜻!

‘제1회 인권영화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인권영화제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1.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인권의식을 영화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하여 높이는 데 기여한다.
2. 상업주의의 장벽에 가로막혀 일반적으로 오락영화만이 ‘영화’라고 인식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인권’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영화를 한자리에 모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3.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권의 보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험난한 과정에 하나의 힘을 보탠다.

[2] ‘제1회 인권영화제’ 어떻게 치러지나?

1996년 11월 초(예정)에 개최되며 10곳 미만의 지방도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인권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장소는 미정). ‘인권’을 주제로 한 약 20편의 영화를 상영하되 모두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작품임을 원칙으로 한다. 20편 중에는 2-3편의 한국영화도 포함된다. 모든 영화를 고성능의 빔프로젝터로 투영되는 비디오로 상영하고 자막을 단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병행하여 표현의 자유와 검열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강연회 등 여러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이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를 제작한 외국의 영화감독 몇사람을 초청하여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갖는다.

[3] ‘제1회 인권영화제’ 누가 수고하나?

물론 인권운동사랑방이 엄청 수고를 한다. 거의 모든 일을 사랑방이 한다. 그러나, 검열거부에서 오는 악조건의 벽을 뚫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다.

1. 조직위원회: 공식적으로 이 영화제를 주최하며, 조직위원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분들을 모실 예정

이다. 아직 교섭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아래 분들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김성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김상근 (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장)
김승훈 (신부, 인권협 대표)/ 김동완 (KNCC 총무)/ 지선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 권영길 (민노총 위원장)/ 구중서 (민예총 이사장)
한상범 (동국대 교수) / 한상진 (서울대 교수) / 박용길 (민가협 공동대표, 통일맞이 이사장)
안성기 (배우, 유니세프 한국대사)/ 이호재 (정신대 대책위 대표) /이미경 (국회의원)
이장호 (영화감독)/ 정지영 (영화감독)/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재식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2. 집행위원회: 실질적으로 영화제준비를 진행시키는 논의구조. 집행위원은,

이상영 (충북대 교수, 사랑방)/ 서준식 (사랑방)/ 윤혜경 (민가협)/ 김동원 (푸른 영상)
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김태영 (인디컴)/ 남희섭 (독립영화협의회)/ 김명준 (월간 '키노')
최준영 ('씨네21' 사업부)/ 이충직 (중앙대 교수)/ 김기중 (변호사)

3. 주관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씨네 21/ 키노/ 기독교방송국 (교섭중)

4. 후원

- * 단체후원을 광범위하게 받는다. 단체는 구좌당 5만원으로 된 후원금을 한구좌 이상 후원한다.
- * 개인후원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받는다. 개인후원금은 1만원 한구좌 이상.
- * 외국의 저명한 인권단체들의 후원을 받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Article 19/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등이다.

또한 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와 영화인들의 후원도 받을 예정이다.

[4] '제1회 인권영화제'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 * 이 영화제는 대중에게 전면 무료로 공개된다.
- * 이 영화제의 총 예산인 약 4,000만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1. 시민운동지원기금 500만원 (이미 확보되었음)
 2. 해설책자 (팸플릿)을 효과적으로 판매
 3. 몇몇 큰 법인체들로부터 특별후원을 받는 길을 모색
 4. 단체 및 개인의 후원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받는다.
 5. 인권영화제를 위한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5]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나?

인권운동사랑방에 사무국을 두어 전담실무자 2명과 여러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을 한다. 11월 말까지 전용전화 704-7461를 사용한다. (전용 팩스도 고려중)

- 영화선정 및 프로그램 확정 (9월 중순)
- 조직위원회 구성. 주요 후원단체 교섭 완료.(9월 말)
- 브라우저 제작(20,000부) 완료.(9월 말)
- 지방 인권영화제 일정 확정.(9월 말)
- 기자회견(10월 초)
- 포스타 제작 완료(10월 초순 →10월 중순까지 부착)
- 해설서 인쇄완료(10월 중순)
- 번역작업 완료(10월 중순), 자막작업 완료(10월 말)
- 후원단체 및 개인후원자 등록 마감(10월 말)
- 영화제(11월 초순 약 1주일간)
- 지방 인권영화제(12월 초까지 계속)(위 일정은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이 제1회 인권영화제를 무료로 공개하기 위하여 9월 초부터 광범위한 후원을 받기 시작한다. 이 영화제의 성공은 내년의,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이어질 인권영화제의 성공을 약속할 것이다.

이제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인권운동에 또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중요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뜻깊은 '제1회 인권영화제'에 사랑방식구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 동 정 ====

▲ 장호순 운영위원이 그동안 근무하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설 사회교육원을 7월31일부터 사직하였습니다. 장운영위원은 두밀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1주일에 한 번 언론연구원에 나오는 외에 연구작업과 원고집필을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 전화: 0356-82-8615

▲ 곽노현 운영위원(방송대 교수, 법학)이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8월4일부터 11일까지 제네바를 다녀오셨습니다. 애초 곽 운영위원은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앰네스티(AI),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인권봉사회(IS)가 공동 주최한 '불처벌에 관한 심포지엄'에 인권협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그 회의에 참가한 후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조약 8차 보고서 심의과정과 불처벌 관련한 루이 장주네드의 보고서 심의 과정 등을 참관하였습니다. 곽 운영위원은 이런 결과를 정리해 <인권하루소식>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인권협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곽 운영위원의 유엔인권소위 참관은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한편, 26일 전·노 등 5.18 관련자 1심 선고 후에는 mbc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과거청산에서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의 중요성, 인권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김순태 자문위원, 박래군 사무국장 국보법심포지엄 발제자 참석- 김순태 자문위원(방송대 교수, 법학)과 박래군 사무국장은 지난 8월6일 서강대에서 민중운동탄압분쇄 범국민대책위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김자문위원은 '국가보안법 법조항의 문제'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김영삼정부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류은숙 교육실장 9월4일 귀국-지난해 11월부터 국제앰네스티 영국본부에서 연수중이던 류은숙 교육실장이 9월4일 귀국합니다. 류실장은 애초 6개월의 예정하였다가 3개월 더 연장하였고, 앰네스티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류실장은 귀국 후 교육실장을 맡으면서 인권영화제 실무에 결합하게 됩니다.

▲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기자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연수 파견-<인권하루소식> 기자 이창조씨가 지난 8월25일부터 1주일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아태민주지도자회의의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했습니다.

▲ 사무국 휴가 8월로 모두 끝나-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사무국의 휴가가 8월말로 모두 끝났습니다. 사무국 간사들은 1주일 동안의 휴가를 즐겼고,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회비로 모아주신 재정을 나눠 1인당 10만원씩의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운영위원 자문위원 중 변호사들 해외주소 확인

· 이덕우(자문위원):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학교(96.7-97.6.) 주소: 5057 Mithun Place NE seattle, WA 98105 U.S.A. 전화: 1-206-527-9361

· 박찬운(운영위원): 미국 버클리 대학교 96.5-99.5. 주소: 1945 Miliva St. APT 104 Berkeley C. A. 94704 U.S.A. 전화: 1-510-649-8243

· 배금자(자문위원): 미국 코넬대학교 96.1-98.1. 주소: Randolph Towers #701, 4001 N. Ninth St. Arlington, VA 22203 U.S.A. 전화: 1-607-275-9637

· 김제완(자문위원): 영국 옥스포드 맨체스터 대학교 주소: 17 Church Lane Old Marston Oxford, OX3 ONZ U.K. 전화: 44-1805-722634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가시면서 사무실에서 청아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다시 승승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파도 처럼 순돌려 새 없이 밀려오는 일거리들, 호젓한 사무실의 하룻밤에 그 파도를 조금이나마 막아 내고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저의 이 래락은 어쩌면 아편이 아편쟁이에게 주는 래락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혼자 웃어 봅니다. 이 덩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호계적은 이런 식으로 저를 유혹합니다.

귀국한 지 두달 가까이나 되어서야 편지를 드리는 저의 무심을 용서하십시오. 편지 드릴 마음을 먹은 저의 머릿속을, 위선을 미워하는 위악이 아무리 아늑당게 느껴져도 결국 위악은 악에 지나지 않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쑥스럽게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까닭은 어쩌면 제가 유준 사람들 등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자문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 인권운동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도 단선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우리의 인권운동, 구멍가게 땀한 단체들이 저마다 단체이기주의에 빠져 돌아가는 한국 인권운동에 봉사한 규목의 모범을 던지고자 땀투어린 단체인 것입니다. 수평적 정보교환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대한 인권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려고 한 <인권하루소식>, 보잘것 없는 자료마저도 '꼬불치고' 독전하려는 족제비 같은 운동행태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인권정보자료실' 그리고 결코 일부 지식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인권의 이론과 지식을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활동가나 삶의 무게에 시달리는 대중들에게까지 넓히려 한 '인권교육'... 그 어느 하나도 '힝입기'가 걸지 않은 사업이 없으며 봉사한 규목이 아닌 사업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의 존재가치가 있었으며 지금도 이 몫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랑방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방'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당초에 이런 봉사한 규목이 쉽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사랑방의 초심[初心]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도 참나적이며 상업적이며 그리고 상변하게도 경쟁적입니다. 저는 세월이 갈 수록 사랑방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그 존재가치를 조금씩 포기하는 데 익숙해져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본말전도[本末顛倒]한 변절로 가득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의 존재가치가 사랑방의 물리적 존재 보다 더 무겁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극언[極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위선을 미워하는 위악도 결국은 악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면서, 저의 힘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사랑방의 초심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현실과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서투르게 서투르게 살아가는 이상주의자. 이런 것이 어쩌면 저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아픔, 찡다 찡다가 여러분과 나뉘 갖고 싶어서 이렇게 종이에 옮겨 보았습니다.

이 가을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일상적 사업 말고도 두가지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최초의 '제1회 인권영화제'라는 뜻깊은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방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하루소식 독자배가운동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힘들고 바쁜 사랑방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가끔 편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남아 초[超]절약생활을 견디며 딸의 병원치료를 뒷바라지 하는 아내에게도 가끔은 편지를 주어야 겠습니다. 쏘스롭지만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위악도 결국은 악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1996년 8월 31일
서준식 드입니다.

96-07분기 재정보고('96 07/16-08/15)

전기이월 -335,414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3,046,200	활동비	3,390,000
하루소식 구독료	2,507,300	사업비	523,200
후원금	100,000	발송비	395,550
사업수익	129,950	사무비품	229,370
기타수익	400,400	사무실유지(집세포함)	503,10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124,100
		전화요금	722,622
		사무기기	171,000
		복사비	15,600
		기타	15,300
계	6,183,850원	계	6,089,842원

최종결산: -241,406원

< 96년 7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 회비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수로 누락되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복사기 한 대 없나요?

지난 3년전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 구입해 주
신 복사기가 이제는 수명이 다했습
니다. 지나치게 혹사를 시켰기 때문
에 이제는 수리해 봤자 잦은 고장만
일으킬 게 뻔한 고물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복사마저 밖에
나가서 해와야 하는 불편함을 실
무자들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습니
다. 어떻게 복사기 한 대 구할 수
없을까요?**

성폭력추방 서울시민대회

- 일시: 9월7일(토) 오후 3시
- 장소: 종묘공원
- 행진: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 주최: 학교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인권, 교육, 여성단체 참여) 등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성폭력
추방을 결의하는 문화집회입니다.